

언약의 일방성과 쌍방성: 요하네스 칼빈의 언약 사상

이재호

(평촌새순교회, 부목사, 조직신학)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초록]

종교개혁 시기의 언약 사상과 관련해 주로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언약의 일방성과 쌍방성 문제다. 이 이슈와 관련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요하네스 칼빈과 취리히의 종교개혁자들인 홀드리히 츠빙글리와 하인리히 불링거가 자주 대조되어 연구되었고, 칼빈을 취리히의 언약신학 전통과 다르게 이해할지, 아니면 동일하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칼빈과 취리히의 언약신학 전통이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칼빈이 언약의 일방성과 쌍방성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쌍방적 언약론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학자들이 쌍방적 언약론에 있어 언약을 조건적 언약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즉 칼빈의 언약 사상이 쌍방적 언약론을 포괄한다는 말은 칼빈에게 있어 언약이 조건적 언약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언약의 쌍방성과 관련해 언약을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학계의 주된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칼빈에게 있어 언약적 관계는 불링거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본질이며, 그래서 본질적으로 언약은 쌍방적이다. 하지만 칼빈은 인간이 조건부로 언약에 참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간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한다.

키워드: 요하네스 칼빈, 홀드리히 츠빙글리, 하인리히 불링거, 일방적 언약, 쌍방적 언약, 조건적 언약

논문투고일 2024.01.09. / 심사완료일 2024.02.23. / 게재확정일 2024.03.05.

1. 서론

종교개혁 시기의 언약 사상과 관련해서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슈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언약의 일방성과 쌍방성 문제다. 특히 이 이슈와 관련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요하네스 칼빈과 취리히의 종교개혁자들인 홀드리히 츠빙글리와 하인리히 불링거가 자주 대조되어 제시되었다. 한편에서는 칼빈의 언약 사상을 일방적 언약론이라고 주장하고 츠빙글리 또는 불링거의 언약 사상을 쌍방적 언약론이라고 주장하며 제네바와 취리히가 서로 다른 언약 사상을 전개했다는 입장을 취하고,¹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칼빈의 언약 사상이 일방적 언약론이지만 츠빙글리 또는 불링거의 언약 사상과 마찬가지로 쌍방적 언약론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한다.² 여기서 쌍방적 언약론과 관련해

* 이 연구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인 Jaeho Lee, *Der Bund Gottes in Calvins Josuakommentar im Rahmen seiner exegetischen Werke* (Diss. Theologische Universiteit Apeldoorn, 2023)의 일부분으로서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에서 주최한 제17회 신진학자포럼에서 발표되었으며 갠신과 부흥 33호에 투고하기 위해 약간 수정되었다.

1 Leonard J. Trinterud, "The Origins of Puritanism," *Church History* 20/1 (1951), 37-57; Jens G. Møller, "The Beginnings of Puritan Covenant Theology,"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14/1 (1963), 46-67; Richard L. Greaves,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English Covenant Thought," *The Historian* 31/1 (1968), 21-35; J. Wayne Baker,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80); Charles S. MacCoy and J. Wayne Baker, *Fountainhead of Federalism.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al Tradi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J. Wayne Baker, "Heinrich Bullinger, the Covenant, and the Reformed Tradition in Retrospect," *Sixteenth Century Journal* 29/2 (1998), 359-376.

2 Elton M. Eenigenburg, "The Place of the Covenant in Calvin's Thinking," *Reformed Review* 10/4 (1957), 1-22; Anthony A. Hoekema, "The Covenant of Grace in Calvin's Teach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1967), 133-161; Lyle D. Bierma, "Federal Theology in the Sixteenth Century: Two Tradition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5 (1983), 304-321; Paul Helm, "Calvin and the Covenant: Unity and Continuity," *Evangelical Quarterly* 55 (1983), 65-81;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1); Eberhard Busch, "Calvins Lehre vom Bund und die Föderaltheologie," in Marco Hofheinz, Wolfgang Lienemann and Martin Sallmann eds., *Calvins Erbe. Beiträge zur Wirkungsgeschichte Johannes Calvi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169-181; Andrew A.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A Study in the Reformed Tradition to the Westminster Assembly* (Grand

주의해야 할 점은 학자들이 쌍방적 언약론에 있어 언약을 조건적 언약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즉 칼빈의 언약 사상이 쌍방적 언약론을 포괄한다는 말은 칼빈에게 있어 언약이 조건적 언약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학계에서 일방적 언약론은 무조건적 언약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쌍방적 언약론은 조건적 언약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종교개혁 시기의 언약 사상 안에서 제네바의 언약신학 전통과 취리히의 언약신학 전통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칼빈의 신학 안에서 언약 개념이 일방적 특징과 쌍방적 특징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을 『기독교강요』와 성경 주석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계에서 언약의 일방성을 무조건적 언약의 범주와 동일시하고 언약의 쌍방성을 조건적 언약의 범주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언약에 있어 일방성과 쌍방성이라는 특징을 무조건성과 조건성이라는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사상적 관점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츠빙글리와 불링거가 ‘조건’(라틴어로 *conditio / condition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쌍방성을 단순히 조건성과 등치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본론

언약에 있어 취리히와 제네바 사이의 “두 전통 이론”(two traditions theory)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학자는 웨인 베이커(J. Wayne Baker)다. 베이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불링거가 사용한 언약이라는 개념과 루터 또는 칼빈이 사용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 의미에 있어 달랐다고 주장한다. 루터나 칼빈에게 있어 언약은 유언(*testamentum*)에 해당하며, 이 개념에는 쌍방적인 혹은 상호적인 언약의 의미

가 없지만, 이와 다르게 불링거는 언약(foedus)을 쌍방적인 언약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베이커는 불링거의 쌍방적인 언약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약(agreement)으로 제시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conditions)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베이커에게 있어 불링거의 언약 개념은 쌍방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조건적이다.³

피터 릴백(Peter A. Lillback)은 칼빈의 언약신학에 대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베이커의 “두 전통 이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먼저 릴백은 불링거의 언약에 대한 저술(*De Testamento*)을 분석하면서 불링거의 언약 개념이 쌍방적이고 조건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⁴ 그리고 칼빈의 창세기 17장에 대한 주해를 검토하면서 칼빈에게도 쌍방적이고 조건적인 언약 개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칼빈이 ‘조건’이라는 용어와 ‘상호적인 신실함’이라는 용어를 숨김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 칼빈이 언약의 쌍방성과 조건성을 인정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한다.⁵ 나아가 언약 개념이 쌍방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언약이 잠정적으로 파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칼빈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칼빈의 『호세아서 주석』을 인용한다.⁶

16세기 취리히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의 언약 개념을 이렇게 쌍방적이며 동시에 조건적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이제 츠빙글리와 불링거가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먼저 분석할 것이다.

1. 츠빙글리와 불링거의 언약신학 전통

(1) 홀드리히 츠빙글리

츠빙글리는 불링거의 전임자로서 개혁파 전통 안에서 “언약신학의 창시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⁷ 그러나 츠빙글리에게 있어 언약 개념이 쌍방적인지에 대해서

3 Baker,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xxi-xxii.

4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10-111.

5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62-164.

6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72.

는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효남은 1520년대 초중반에 츠빙글리의 언약 개념 안에 쌍방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⁸ 이은선이 시기의 츠빙글리의 언약 사상 안에 쌍방적인 개념이 분명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⁹ 케네스 하젠(Kenneth Hagen)과 스콧 길리스(Scott A. Gillies)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취리히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강조점이 일방적 언약론에서 쌍방적 언약론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¹⁰ 앞서 불링거에게 있어 쌍방적이고 조건적인 언약론을 주장했던 베이커는 조건적인 언약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불링거와는 대조적으로 츠빙글리의 언약론 안에는 쌍방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¹¹

츠빙글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찬론에 대해 논쟁하면서(*Subsidium sive coronis de eucharistia*, 1525년 8월 17일) 언약 개념에 대해 해설한다. 츠빙글리에게 있어 언약 개념은 창세기 17장의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에서 잘 나타나는데, 츠빙글리는 언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콘디치오’(conditio)라고 설명한다.¹² 여기서 츠빙글리가 사용한 라틴어 ‘콘디치오’를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는지에 따라 언약의 쌍방성과 조건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학계에서는 ‘콘디치오’를 예외 없이 ‘조건’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불링거와 칼빈이 언약에 있어 ‘콘디치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7 Emanuel Graf von Korff, *Die Anfänge der Foederaltheologie und ihre erste Ausgestaltung in Zürich und Holland* (Bonn: Eisele, 1908); Gottlob Schrenk, *Gottesreich und Bund im älteren Protestantismus, vornehmlich bei Johannes Coccejus. Zugleich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Pietismus und der heilsgeschichtlichen Theologi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7).

8 김효남, “언약사상에 나타난 쌍무성: 중세 후기의 언약개념과 종교개혁자들의 언약사상 비교,” 『역사신학논총』 제39권(2021), 9-50, 여기서는 24.

9 이은선, “츠빙글리의 언약사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 1523-1525년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30호(2022), 87-123, 여기서는 106-107, 115-116.

10 Kenneth Hagen, “From Testament to Covenant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Sixteenth Century Journal* 3/1 (1972), 1-24; Scott A. Gillies, “Zwingli and the Origin of the Reformed Covenant 1524-7,”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4/1 (2001), 21-50.

11 Baker,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14-16.

12 Z 4: 499: “Testamentum, quod ad praesens adinet, nihil aliud est quam conditio a deo promissa. Ut quum dominus cum Abraham ferit pactum sive foedus Gen. 17.”

지적하면서 두 종교개혁자가 언약의 조건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츠빙글리가 언약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콘디치오’를 단순히 ‘조건’이라고만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언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콘디치오’가 규정되어 있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콘디치오’라고 설명한다.¹³ 여기서 ‘콘디치오’는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상태’(독일어로 Zustand 또는 Beschaffenheit)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츠빙글리는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쌍방의 언약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츠빙글리는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상태가 진정한 언약 그 자체라고 말한다.¹⁴ 이 표현을 두고 ‘콘디치오’를 ‘조건’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조건들이 진정한 언약 그 자체’라고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오히려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하인리히 불링거

불링거의 언약 사상은 앞서 언급한 웨인 베이커 외에도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¹⁵ 불링거의 경우 언약에 대한 단행본 저술로 유명한데, 불링거는 자신의

13 Z 4: 499: “Hic nihil auditur quam foedus, quod deus per gratiam suam dignatus est inire cum Abraham. Quid vero continet hoc foedus? Quibus conditionibus statuitur? Hae sunt ergo conditiones: “Ego ero deus tuus. Tu ambulabis coram me integerrime. Ego patrem multarum gentium faciam te. Dabo tibi e Sara semen. Ero posteritatis quoque tuae illius, quam polliceor, deus. Dabo tibi et semini tuo terram, in qua nunc inquilinus es.””

14 Z 4: 499: “Quae quidem conditiones verum ipsum foedus sunt.”

15 Heinrich Assel, “»Bund« - souveränes Leben mit Gott im Gebot und Gesetz. Heinrich Bullingers »Von dem einigen und ewigen Testament oder Pundt Gottes« (1534),” *Evangelische Theologie* 64/2 (2004), 148-158; Dieter Groh, “Heinrich Bullingers Bundestheologie,”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115 (2004), 45-99; Peter Opitz, *Heinrich Bullinger als Theologe. Eine Studie zu den »Dekaden«* (Zürich: TVZ, 2004),

『언약론』을 1534년에 라틴어로 출판했고,¹⁶ 또한 같은 해에 출판사, 출판 장소, 출판 연도 표기 없이 독일어로¹⁷ 번역해 출간했다.¹⁸ 불링거는 언약 개념을 설명할 때에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포에두스’(foedus) 또는 ‘팍툼’(pactum)을 지목하는데, 이 용어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¹⁹ 이를 통해 불링거는 츠빙글리와 마찬가지로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또한 불링거는 츠빙글리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⁰ 여기서 불링거는 츠빙글리와 동일하게 ‘콘디치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언약론』의 독일어 번역본을 보면, ‘콘디치오’라는 표현에 대한 번역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더 상세히 해설해주고 있다.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conditiones / gedingen) 언약이 맺어졌는지, 각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제시된다.”²¹ 불링거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317-352; Aurelio A. García, “Bullinger’s De testamento. The Amply Biblical Basis of Reformed Origins,” in Emidio Campi and Peter Opitz eds., *Heinrich Bullinger. Life - thought - influence. Zurich, Aug. 25 - 29, 2004 International Congress Heinrich Bullinger (1504 - 1575)* (Zürich: TVZ, 2007), 671-692; Lukas Vischer, “... einen Bund mit euch und allen lebenden Wesen,” in Emidio Campi and Peter Opitz eds., *Heinrich Bullinger. Life - thought - influence. Zurich, Aug. 25 - 29, 2004 International Congress Heinrich Bullinger (1504 - 1575)* (Zürich: TVZ, 2007), 573-592; Joe Mock, “Bullinger and the Covenant with Adam,”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70/3 (2011), 185-205; Joe Mock, “Biblical and Theological Themes in Heinrich Bullinger’s »De Testamento« (1534),” *Zwingliana* 40 (2013), 1-35; William Peter Stephens, *The Theology of Heinrich Bulling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193-224.

16 Heinrich Bullinger,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 aeterno Henrychi Bullingeri brevis expositio* (Zürich: Christoph Froschauer, 1534).

17 Heinrich Bullinger, *Von dem einigen unnd ewigen Testament oder Pundt Gottes*.

18 HBBibl 1: 34, Nr. 60. 『언약론』의 독일어 번역본은 쪽수가 매겨져 있지 않다.

19 Bullinger,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 aeterno*, 2a-3b.

20 Bullinger,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 aeterno*, 5b: “Deinde quibus conditionibus conuenerint, utique his, quod Deus uelit esse seminis Abrahae Deus, & quod semen Abrahae integre coram Deo debeat ambulare.”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언약 체결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점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다시 함께하고 서로 어떻게 다시 교제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언약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불링거는 자신의 『언약론』에서 이런 언약적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콘디치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스스로 이에 대한 더 나은 표현으로 ‘카퓏’(caput)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²² 여기서 라틴어 ‘카퓏’은 ‘주요 내용’ 또는 ‘핵심 요점’을 의미한다.²³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불링거가 『언약론』의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언약적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라틴어 ‘카퓏’에 해당하는 독일어 ‘푼트아티켈’(pundtsartikkel)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라틴어 ‘콘디치오’에 해당하는 독일어 ‘게딩어’(gedinge)는 『언약론』의 독일어 번역본에 여덟 번만 등장하는데,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표현들 즉, ‘푼트아티켈’, ‘페어슈라이bung’(verschrybung), ‘슐디히’(schuldig)와 같은 표현들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점으로 불링거가 『언약론』 이전의 다른 저술들에서도 여러 번 언약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데, 한 저술에서는 언약적 관계에 대해 ‘콘디치오’가 아니라 ‘카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²⁴ 윌리엄 스티븐스(William Peter Stephens)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불링거에게 있어 언약적

21 Bullinger, *Von dem einigen unnd ewigen Testament oder Pundt Gottes*: “Demnach wirt gemeldet was yeder teyl dem anderen schuldig sye / mit was gedingen der pundt gemacht / vud worzû sich yede part verbunden.”

22 Bullinger,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 aeterno*, 4a: “Nam in foederibus certae priscis erant ceremoniae, conditiones praescriptiones ue certae, aut si maus appellare capita, quibus scilicet conditionibus coëat foedus, quandiu uinciat.”

23 다음을 또한 참조하라. HBW.SR 1: 84: “Neque hic ignoramus Agricolæ et aliorum de statu sententiam, vocamus tamen statum summam, caput, constitutionem, in quo potissimum rei cardo vertitur, de quo potissimum disseritur, et unde omnia argumenta dependent.”

24 Heinrich Bullinger, *De prophetæ officio, et quomodo digne administrari possit, oratio, Heinrycho Bullingero Authore* (Zürich: Christoph Froschauer, 1532), 4b-5a: “Testamenti enim uoce pactum intelligimus foedus & conuentionem, eam uidelicet, qua Deus conuenit cum uniuerso mortalium genere, se Deum nostrum fore, omni sufficientiam, bonorum aceruum, … Debere autem hominem studere integritati, ut perfecto erectoque sit erga hunc Deum animo, ut ambulet in uiis eius, atque se totum illi committat, tanquam Deo summo & patri amantissimo. Haec autem foederis capita, Abrahae quidem concredita, …”

관계(믿음과 사랑)가 언약 체결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⁵

볼링거가 『언약론』의 독일어 번역본에서 ‘게딩어’라는 단어만을 사용했던 두 번의 경우를 살펴볼 때에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바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아이들이 언약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볼링거는 이 점에 있어 잘못된 주장에 대해 지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단지 언약의 ‘콘디치오’만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간과하면서 아이들을 언약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하지만 볼링거는 언약의 ‘콘디치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공활을 또한 주목해야 하고 절대 아이들이 언약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²⁷ 그러면서 아이들이 언약에서 제외될 경우는 단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언약의 ‘콘디치오’를 경시했을 때라고 설명한다.²⁸ 여기서 ‘콘디치오’를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앞선 논의에 비추어볼 때에 볼링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재세레파와 같이 아이들을 언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콘디치오’를 ‘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츠빙글리와 볼링거가 ‘콘디치오’라는 용어를 사용한 방식을 다루면서 우리는 먼저 취리히 전통에서 언약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 관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약은 언약적 관계를 고려할 때에 근본적으로 쌍방향적이다. 그러나 ‘콘디치오’라는 용어를 사용한 방식을 볼 때에 언약적 관계를 단편적으로 조건적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언약의 주요 내용 또는 핵심 요점이 언약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언약적 상태로서

²⁵ Stephens, *The Theology of Heinrich Bullinger*, 202–203.

²⁶ Bullinger,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 aeterno*, 7b–8a: “Qui enim conditiones duntaxat foederis expendunt, gratiam uero & promissionem Dei negligunt, infantes foedere excludunt: eo uidelicet quod pueri foederis capita non modo non obseruent, sed ne intelligant quidem.”

²⁷ Bullinger,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 aeterno*, 8a: “Caeterum si singulis tribuas singula habeasque non conditionum foederis modo, sed & promissionis siue misericordiae Dei, aetatis ac rationis respectum, deprehendes credentes ex Iudaeis & Gentibus esse illud semen Abrahae cum quo foedus iniiit Dominus: interim uero sobolem, hoc est infantes istorum foedere nequaquam excludi.”

²⁸ Bullinger,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 aeterno*, 8a: “excludi autem ubi accedente rationis usu foederis conditiones negligunt.”

언약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칼빈에게 있어서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요하네스 칼빈의 언약 사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츠빙글리와 불링거는 모두 언약의 본질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와 연결하시고, 우리는 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입장을 정확하게 칼빈이 취하고 있는데, 다만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달리 이런 언약의 본질에 대해 ‘은혜로운 받아주심’(gratuita adoptio)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⁹ 칼빈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 자체가 언약의 일방성과 함께 언약의 쌍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먼저 ‘은혜로운’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칼빈에게 있어 언약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달려 있다. 또한 ‘받아주심’이라는 표현은 칼빈에게 있어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적 관계를 만드셨다. 칼빈에게 있어 이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언약적 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고는 이 언약적 관계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제 언약의 쌍방성을 보여주는 언약적 관계를 칼빈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성경 주석들을 통해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1) 언약의 쌍방성

1) 『기독교강요』

²⁹ Hans Heinrich Wolf, *Die Einheit des Bundes. Das Verhältnis vom Alten und Neuem Testament bei Calvin* (Neukirchen: Verlag der Buchhandlung des Erziehungsvereines, 1958), 19-24.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언약의 쌍방성에 대해 세 가지 유비적 표현들을 사용해 설명한다.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서 분리시키신다.³⁰ 칼빈에게 있어 명확한 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구약 시대에서나 신약 시대에서나 변함이 없으며, 이 언약적 관계를 바탕으로 참된 경건이 형성된다.³¹

두 번째로 언약의 쌍방성을 보여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칼빈은 언약적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한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신다.³² 또한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외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³³ 칼빈이 이렇게 언약적 관계를 규정할 때에 특징적인 점은 바로 쌍방이 서로에 대한 언약적 책무를 진다는 점인데, 이는 언약 자체가

30 CO 2: 54 (Inst. 1.6.1): "Meminerint ergo lectores, me nondum de foedere illo disserere, quo sibi Deus adoptavit Abrahae filios, et de illa doctrinae parte qua proprie segregati semper fuerunt fideles a profanis gentibus, quia in Christo fundata fuit."

31 CO 2: 62 (Inst. 1.8.3): "Nam utcunque graeci scriptores de aegyptiaca theologia multa fabulentur, nullum tamen cuiusquam religionis monumentum exstat quod non sit Mosis saeculo longe inferius. Neque Moses novum Deum comminiscitur: sed quod de aeterno Deo longa temporum serie a patribus quasi per manus traditum acceperant Israelitae, proponit. Quid enim aliud agit, quam ut ad foedus ipsos revocet cum Abrahamo initum?"

32 CO 2: 1002 (Inst. 4.17.1): "Postquam nos semel in familiam suam recepit Deus, nec tantum ut servorum loco nos habeat, sed filiorum, ut partes impleat optimi patris et de sua progenie solliciti, continuo etiam vitae cursu nos alendos suscipit."

33 CO 2: 594 (Inst. 3.17.6): "Haec porro demonstrationis ratio: quemadmodum in hunc finem aeternae vitae gratia nos dignatur Deus ut diligatur, timeatur, colatur a nobis, ita quaecunque misericordiae in scriptura promissiones habentur, merito ad hunc diriguntur finem, ut revereamur et colamus beneficiorum autorem. Quoties ergo audimus ipsum benefacere iis qui legem suam observant, meminerimus Dei filios ab officio designari, quod in illis perpetuum esse debet: hac ratione nos esse adoptatos, ut ipsum patris loco veneremur. Ne ergo ipsi adoptionis iure nos abdicemus, huc semper enitendum quo tendit nostra vocatio."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고유한 언약적 책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표현은 칼빈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제시할 때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바비(David Barbee)는 칼빈과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를 비교 연구하면서 칼빈의 신학에 있어 ‘받아주심’(adoptio)이라는 주제가 혼인이라는 상징을 통해 잘 이해가 된다고 지적한다.³⁴ 칼빈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에 다른 누구를 두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³⁵ 이렇게 혼인의 관계가 상호간의 신실함에 기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다.³⁶ 칼빈에게 있어 부부 사이에 서로 신실해야 하는 의무는 언약적 의무에 비교되며,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이 신실함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2) 성경 주석

칼빈은 성경 주석들에서 언약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이를 통해 각각의 언약들이 어떻게 언약의 쌍방향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한다. 언약의 역사 안에서 칼빈에게 있어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다.³⁷ 먼저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 칼빈은 이 언약 자체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즉, 하나님께 해당하는 부분은 복된 삶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고, 아브라함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진정성 있게 정의

³⁴ David Barbee, “Covenantal Spirituality: Bernardine Themes in Calvin’s Covenantal Theolog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3 (2011), 133-155.

³⁵ *CO* 2: 279 (*Inst.* 2.8.18): “Deinde aemulatorem se vocat, qui consortem ferre nequeat.”

³⁶ *CO* 2: 279-280 (*Inst.* 2.8.18): “Personam mariti erga nos induere usitatissimum est Deo, siquidem coniunctio qua nos sibi devincit, dum in ecclesiae sinum recipit, sacri cuiusdam coniugii instar habet, quod mutua fide stare oportet. Ipse ut omnibus fidelis ac veracis mariti officis defungitur, ita vicissim a nobis stipulatur amorem ac castitatem coniugalem: hoc est, ne animas nostras satanae, libidini foedisque carnis cupiditatibus stuprandas prostituamus.”

³⁷ Wulfert de Greef, *Calvijn en het Oude Testament* (Amsterdam: Bolland, 1984), 172.

와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격려다.³⁸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³⁹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언약 체결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⁴⁰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⁴¹

다음으로 모세 언약은 칼빈에게 있어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위에 맺어진 언약으로서 동일하게 쌍방적 특징을 갖고 있다. 모세 언약이 체결될 때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율법의 공포였는데, 칼빈에게 있어 율법은 일차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규칙이었다. 율법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동시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안다는 것이다.⁴²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칼빈은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성적 사랑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³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

38 CO 23: 235: “Diximus bimembre fuisse Dei foedus cum Abram. Prius membrum erat gratuiti amoris testimonium, cui annexa erat beatae vitae promissio. Alterum vero, exhortatio ad sinceram oolendae iustitiae studium. Quia Deus uno tantum verbo levem gratiae suae gustum dederat et mox ad vocationis finem descenderat, ut Abram esset integer.”

39 CO 23: 234: “Pro Deo hic habetur hebraicum nomen El, quod a potentia deductum est. Eodem pertinet epitheton אלהים, ac si pronunciaret Deus, se ad protegendum Abram satis habere virtutis, quia nunquam aliter consistit fides nostra quam dum certo persuasi unicum Dei praesidium nobis sufficere, quidquid salutis nostrae in mundo adversum est secure despiciamus.”

40 CO 23: 234: “In foedere pangendo stipulator Deus a servo suo obedientiam. Sed non frustra praefatus est Deus se fortem esse Deum, et instructum virtute ad suos iuvandos: quia revocari ab aliis omnibus oportuit Abram ut totum se uni Deo addiceret.”

41 CO 23: 234: “Porro quia Dei oculi fidem et veritatem cordis respiciunt iubetur Abram integritati operam dare. Nam hominem perfectionum Hebraei nominant, qui animo est non fucato nec duplici, sed sincere rectitudinem colit. In summa, integritas, cuius hic fit mentio, hypocrisis opponitur.”

42 CO 24: 725: “Quatenus in lege ostenditur discrimen boni et mali, ad formandam hominum vitam data est, ut merito vocetur bene et iuste vivendi regula. Atque hic finis legis omnibus fere notus est: quia sine controversia fatentur omnes Deum illic praescribere quid rectum sit, ne incerti tota vita erremus: quia ut eius voluntas perfecta est lex iustitiae, ita solus nos dirigere in scopum potest.”

하게 하기 위해 상호간의 사랑을 요청하시는데, 이를 위해 칼빈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⁴⁴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상호간의 사랑 안에서 체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⁴⁵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은 칼빈에게 있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새롭게 맺어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신 왕을 위해 영원한 은혜를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다는 점이다.⁴⁶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온 백성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다윗의 인격 안에 두셨다는 것이다.⁴⁷ 그래서 다윗 언약은 칼빈에게

⁴³ CO 24: 223: "Iterum exhortandi argumentum sumitur a singulari adoptionis gratia, qua Deus Abraham dignatus fuerat. Nihil enim ad obsequium praestandum acrius stimulare eos debuit quam amor ille plusquam paternus et gratuita benevolentia qua ipsos praevenerat. Quanquam simul his verbis fuerunt admoniti in quem finem segregati essent a reliquis gentibus. Colligit enim, quia recepti sunt a Deo in populum, obstringi ad servanda eius statuta."

⁴⁴ CO 24: 222: "Ex illatione apparet quorsum adoptionis facta fuerit mentio, nempe ut sanctius et maiore studio Deum colerent Iudaei, quem tam beneficium experti erant. Exigit ergo mutuuum amorem. Nihil enim turpius quam non testari gratitudinem pie iusteque vivendo. Sed quia natura minime propensi sunt aut formati homines ad Dei obsequium, hortatur eos Moses ad sui abnegationem, atque ad domandos et corrigendos carnis affectus. Nam cor circumcidere tantundem valet ac purgare pravis cupiditatibus."

⁴⁵ CO 25: 19-20: "Quod autem prius a fidelibus requiritur, ut Deum diligant, quam ut custodiant eius praecepta, hinc docemur, fontem et causam obedientiae, amorem esse quo Deum ut patrem amplectimur."

⁴⁶ CO 31: 811: "Propheta quisquis fuerit Psalmi autor, Deo supplicaturus pro afflictis ecclesia, foedus Dei quod cum Davide pepigerat, sibi et reliquis ad bene sperandi materiam proponit. [...] Inde iterum ad foedus cum Davide percussum revertitur, in quo pollicitus fuerat Deus se in regis favorem populo semper fore propitium."

⁴⁷ CO 31: 180-181: "Scimus enim quam indigne falsa invidia gravatus fuerit: neque vero tam eius fama probris istis impetebatur, quam communis totius ecclesiae salus. Quamvis enim Saulem privatus dolor in rabiem ageret, aliique omnes ut regi navarent operam acriter et violento impetu contra Davidem ruerent: minime tamen dubium est, Satanae impulsu regnum illud tantopere fuisse oppugnatum: quia in unius hominis persona Deus spem publicae salutis posuerat. Haec ratio est cur tam sollicite et vehementer contendat David in asserenda causae suae iustitia."

있어 기독교적 의미를 강력하게 전달하는데, 다윗이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나 다윗 언약에서도 칼빈은 언약의 쌍방적 특징에 대해 주저 없이 설명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언약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면,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순전한 양심과 복종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며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올바른 길로 가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⁹

칼빈에게 있어 언약의 쌍방적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본질 또는 핵심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언약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 결코 배제될 수 없다. 언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을 살펴볼 때에도 칼빈은 항상 언약의 양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중요하게 제시한다. 칼빈에게 있어 이 언약적 관계는 상호간의 사랑에 기초하며 서로에게 언약적 책무와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언약은 칼빈에게 있어 근본적으로 쌍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약이 쌍방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언약이 조건적이라고 칼빈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 언약은 언제나 은혜로운 언약이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48 CO 31: 820-821: “Quod ex proximo versu clarius liquet, ubi primogenitum quoque appellat: quia emineat super omnes terrae reges: qui honor tam omni humana dignitate, quam angelica excellentior est. Si quis obiiciat, Davidem unum ex grege mortalium, non fuisse aequalem angelis: solutio facilis est, Si in se reputetur, non posse in tam sublimem gradum iure efferi: sed quatenus Christi personam ad tempus sustinuit.”

49 CO 31: 180: “Prius testatus est se non nisi Deo duce venisse in spem regni, neque hominum suffragiis fuisse evectum, vel proprio motu prorupisse, sed quoniam ita Deo placuerat: nunc secundo loco addit, se fidele obsequium praebuisse Deo, ut nunquam ab eius nutu deflexerit. Utrumque enim fuit necessarium, ut gratis Davidem suo favore praeveniret Deus, ipsumque regem eligeret: David autem vicissim obedienter et pura conscientia regnum sibi divinitus oblatum susciperet: deinde quidquid tentaret impii ad labefactandam eius fidem, constanter teneret rectum vocationis suae cursum. Nunc videmus adeo nihil esse dissidii inter duas istas sententias, ut aptissime inter se respondeant. David hic Deum velut agonothetam statuit, cuius auspiciis et ductu productus fuerit ad obeunda certamina, hoc vero ab electione pendet, quia favore suo eum complexus, regem creaverat. Postea addit, se iniunctas sibi partes quo debuit obsequio ad finem usque obiisse.”

(2) 언약의 일방성

언약의 일방성이라는 표현은 언약이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언약이 특징적으로 은혜 언약임을 나타낸다. 칼빈은 은혜 언약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전부를 제시한다. 그래서 칼빈이 은혜 언약을 기술할 때에 증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우선시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에게 있어 은혜 언약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1) 성령의 사역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우리에게 삶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지만, 칼빈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요구를 따를 수는 없다. 인간에게 이 요구를 따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칼빈은 예레미야 31장 32-33절을 제시하며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고 강조한다.⁵⁰ 신명기 30장 11절(“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을 근거로 인간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데, 신명기 30장 6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하게 하사”)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은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말씀이

⁵⁰ CO 2: 236-237 (Inst. 2.5.9): “Unum hoc duntaxat mihi concedi volo, frustra implendae legis facultatem in nobis requiri, quia eius obedientiam nobis Dominus imperet, quando constat omnibus Dei praeceptis adimplendis et necessariam esse gratiam legislatoris, et nobis promissam, quia inde patet, saltem plus a nobis exigi quam simus solvendo. Nec vero ullis cavillis dilui potest illud Ieremiae (31, 32), irritum fuisse Dei percussum cum veteri populo, quia literale tantum erat: non aliter autem sanciri quam ubi accedit spiritus, qui ad obediendum corda format.”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보호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설명한다.⁵¹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영원토록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칼빈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는다. 언약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이행될 수 없으며, 성령만이 율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끌어가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 언약이 영원토록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이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다.

2) 중보자 그리스도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언약론은 중보자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⁵² 칼빈은 『기독교강요』 2권 6장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을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을 언약의 역사와 연결시킨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⁵³ 또한 언약의 역사 전체를 살펴볼 때에 칼빈에게 있어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존속과 구원이 교회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점이다.⁵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이 목적인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⁵⁵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

51 CO 2: 240-241 (Inst. 2.5.12): "Nam et paucis ante versibus (Deut. 30, 8) docuerat, circumcidi manu Dei oportere corda nostra, ut ipsum diligamus. Ergo hanc, de qua mox loquitur, facilitatem non in hominis virtute, sed in ope ac praesidio spiritus sancti posuit, qui opus suum potenter in nostra infirmitate peragit."

52 빌헬름 니젤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칼빈의 언약 사상 안에서 언약의 기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Kaiser, 1957), 103.

53 CO 2: 248 (Inst. 2.6.2): "Ac proinde veteri populo nunquam se Deus ostendit propitium, nec spem gratiae unquam fecit absque mediatore."

54 CO 2: 249 (Inst. 2.6.2): "Denique sic ecclesiam suam servare voluit Deus, ut eius incolumitas et salus a capite illo penderet. Ideoque exclamat David (Psal. 28, 8): Iehovah fortitudo populi sui, robur salutem Christi sui. Et mox precationem addit: serva populum tuum, et benedic haereditati tuae; significans ecclesiae statum individuo nexu cum Christi imperio coniunctum esse."

55 CO 2: 251 (Inst. 2.6.4): "His vaticiniis ita imbui voluit Deus Iudaeos, ut liberationis petendae causa, recta oculos ad Christum converterent. Nec vero quamvis turpiter

언약은 칼빈에게 있어 은혜 언약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다.

3) 하나님의 선택

칼빈에게 있어 언약의 은혜로운 특징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해서 설명될 때에 실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⁵⁶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을 두 가지 단계로 제시하는데,⁵⁷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 자신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으며,⁵⁸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각 개인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유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효과를 인치셨다.⁵⁹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택이 두 가지 단계로 제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앤드류 울시(Andrew A. Woolsey)는 선택에 있어 두 단계가 ‘받아주심’(adoptio)라는 개념 안에서 언약의 두 단계와 연결된다고 지적한다.⁶⁰ 여기서 언약의 두 단계라는 것은 옛언약과 새언약을 문자와 영의 차이로 제시하는 두 단계를 의미한다.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의 두 번째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앞서 논의한 중보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결코 끊을

degenerassent, potuit tamen aboleri memoria generalis illius principii, Deum per manum Christi, sicuti Davidi pollicitus fuerat, fore ecclesiae liberatorem; atque demum hoc modo firmum fore gratuitum foedus quo Deus electos suos adoptaverat.”

⁵⁶ Eenigenburg, “The Place of the Covenant in Calvin’s Thinking,” 6-7.

⁵⁷ CO 2: 685 (Inst. 3.21.6): “Caeterum hic duos gradus notandos esse non temere dixi.”

⁵⁸ CO 2: 685 (Inst. 3.21.6): “quia iam in totius gentis electione ostendit Deus, se in mera sua liberalitate nullis legibus astrictum sed liberum esse, ut minime ab eo exigenda sit aequalis gratiae partitio, cuius inaequalitas ipsam vere esse gratuitam demonstrat.”

⁵⁹ CO 2: 685 (Inst. 3.21.7): “Quanquam satis iam liquet Deum occulto consilio libere quos vult eligere, aliis reiectis, nondum tamen nisi dimidia ex parte exposita est gratuita eius electio, donec ad singulas personas ventum fuerit, quibus Deus non modo salutem offert, sed ita assignat, ut suspensa vel dubia non sit effectus certitudo.”

⁶⁰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329-332.

수 없는 끈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연결된다.⁶¹ 다음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증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다.⁶² 이렇게 칼빈은 언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 안에서 은혜 언약으로 이해한다.

III. 결론

언약의 일방성과 쌍방성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다. 이렇게 논쟁을 촉발하는 요소는 사실 언약 개념 자체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루터와 멜란히톤의 경우 언약 개념 가운데 일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프로미시오’(promissio) 개념에 근거해 언약 사상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언약’(das Testament Christi)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멜란히톤은 ‘복음’(das Evangelium)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언약을 기술한다. 츠빙글리와 불링거의 경우 언약 개념 가운데 쌍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포에두스’(foedus) 개념에 근거해 언약 사상을 발전시킨다. 불링거는 언약 개념 안에 ‘프로미시오’ 개념과 ‘포에두스’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포에두스’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언약론을 전개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래서 츠빙글리와 불링거에게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핵심이다. 칼빈의 경우 2세대 종교개혁자로서 루터와 멜란히톤에게 특징적인 ‘프로미시오’ 개념과 츠빙글리와 불링거에게 특징적인 ‘포에두스’ 개념을 모두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칼빈은 언약의 일방적 특징을 나타내는 ‘약속으

61 CO 2: 685 (Inst. 3.21.7): “ut efficax et vere stabilis sit electio, necesse est ascendere ad caput in quo electos suos coelestis pater inter se colligavit, et sibi insolubili nexu devinxit. Ita in adoptione generis Abrahae enituit quidem liberalis Dei favor, quem alii negavit. In Christi tamen membris longe praestantior eminet vis gratiae: quia capiti suo insiti nunquam a salute excidunt.”

62 CO 2: 686 (Inst. 3.21.7): “Quod autem generalis electio populi non semper firma et rata sit, in promptu se offert ratio: quia cum quibus paciscitur Deus non protinus eos donat spiritu regenerationis, cuius virtute usque in finem in foedere perseverent.”

로서 언약'과 언약의 쌍방적 특징을 나타내는 '관계로서의 언약'을 종합적으로 자신의 언약 사상 안에 담아내고 있다. 웨인 베이커가 주장하는 것처럼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방적 언약론을 가르친다고 설명하는 것은 칼빈의 언약 사상을 올바르게 평가한 것이 아니다. 칼빈에게 언약적 관계는 불링거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본질이며 그래서 언약은 근본적으로 쌍방적이다.

그러나 칼빈의 언약 개념이 쌍방적일 뿐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단지 '콘디치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링거의 언약 개념이 조건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링거의 언약 사상 전체를 살펴보고 조건적인 언약론이 불링거의 신학 안에서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칼빈의 경우도 언약의 쌍방성이 아니라 언약의 조건성에 대한 인정으로까지 나아가는 학자들의 주장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칼빈은 인간이 조건부로 언약에 참여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 언약의 체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언약의 성취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 인간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언약적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모두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한다.

[참고문헌]

약어

CO	<i>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i>
HBBib1	<i>Heinrich Bullinger Bibliography</i>
HBW.SR	<i>Heinrich Bullinger Studiorum Ratio</i>
Inst.	<i>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Z	<i>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i>

1차 문헌

Bullinger, Heinrich. *De prophetae officio, et quomodo digne administrari possit, oratio, Henrycho Bullingero Authore*. Zürich: Christoph Froschauer, 1532.

_____.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 aeterno Henrychi Bullingeri brevis expositio*. Zürich: Christoph Froschauer, 1534.

_____. *Von dem einigen unnd ewigen Testament oder Pundt Gottes*.

2차 문헌

Assel, Heinrich. "»Bund« - souveränes Leben mit Gott im Gebot und Gesetz. Heinrich Bullingers »Von dem einigen und ewigen Testament oder Pundt Gottes« (1534)." *Evangelische Theologie* 64/2 (2004), 148-158.

Baker, J. Wayne.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80.

_____. "Heinrich Bullinger, the Covenant, and the Reformed Tradition in Retrospect." *Sixteenth Century Journal* 29/2 (1998), 359-376.

Barbee, David. "Covenantal Spirituality: Bernardine Themes in Calvin's Covenantal Theolog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3 (2011), 133-155.

- Bierma, Lyle D. "Federal Theology in the Sixteenth Century: Two Tradition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5 (1983), 304-321.
- Busch, Eberhard. "Calvins Lehre vom Bund und die Föderaltheologie." in Marco Hofheinz, Wolfgang Lienemann and Martin Sallmann eds., *Calvins Erbe. Beiträge zur Wirkungsgeschichte Johannes Calvi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169-181.
- de Greef, Wulfert. *Calvijn en het Oude Testament*. Amsterdam: Bolland, 1984.
- Eenigenburg, Elton M. "The Place of the Covenant in Calvin's Thinking." *Reformed Review* 10/4 (1957), 1-22.
- García, Aurelio A. "Bullinger's De testamento. The Amply Biblical Basis of Reformed Origins" in Emidio Campi and Peter Opitz eds., *Heinrich Bullinger. Life - thought - influence. Zurich, Aug. 25 - 29, 2004 International Congress Heinrich Bullinger (1504 - 1575)*. Zürich: TVZ, 2007, 671-692.
- Gillies, Scott A. "Zwingli and the Origin of the Reformed Covenant 1524-7."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4/1 (2001), 21-50.
- Greaves, Richard L.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English Covenant Thought." *The Historian* 31/1 (1968), 21-35.
- Groh, Dieter. "Heinrich Bullingers Bundestheologie."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115 (2004), 45-99.
- Hagen, Kenneth. "From Testament to Covenant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Sixteenth Century Journal* 3/1 (1972), 1-24.
- Helm, Paul. "Calvin and the Covenant: Unity and Continuity." *Evangelical Quarterly* 55 (1983), 65-81.
- Hoekema, Anthony A. "The Covenant of Grace in Calvin's Teach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1967), 133-161.
- Lillback, Peter A.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1.
- MacCoy, Charles S. and Baker, J. Wayne. *Fountainhead of Federalism.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al Tradi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 Mock, Joe. "Bullinger and the Covenant with Adam."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70/3 (2011), 185–205.
- _____. "Biblical and Theological Themes in Heinrich Bullinger's »De Testamento« (1534)." *Zwingliana* 40 (2013), 1–35.
- Møller, Jens G. "The Beginnings of Puritan Covenant Theology."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14/1 (1963), 46–67.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Kaiser, 1957.
- Opitz, Peter. *Heinrich Bullinger als Theologe. Eine Studie zu den »Dekaden«*. Zürich: TVZ, 2004.
- Schrenk, Gottlob. *Gottesreich und Bund im älteren Protestantismus, vornehmlich bei Johannes Coccejus. Zugleich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Pietismus und der heilsgeschichtlichen Theologi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7.
- Stephens, William Peter. *The Theology of Heinrich Bulling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 Trinterud, Leonard J. "The Origins of Puritanism." *Church History* 20/1 (1951), 37–57.
- Vischer, Lukas. "... einen Bund mit euch und allen lebenden Wesen." in Emidio Campi and Peter Opitz eds., *Heinrich Bullinger. Life - thought - influence. Zurich, Aug. 25 - 29, 2004 International Congress Heinrich Bullinger (1504 - 1575)*. Zürich: TVZ, 2007, 573–592.
- von Korff, Emanuel Graf. *Die Anfänge der Foederaltheologie und ihre erste Ausgestaltung in Zürich und Holland*. Bonn: Eisele, 1908.
- Wolf, Hans Heinrich. *Die Einheit des Bundes. Das Verhältnis vom Alten und Neuem Testament bei Calvin*. Neukirchen: Verlag der Buchhandlung des Erziehungsvereines, 1958.
- Woolsey, Andrew A.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A Study in the Reformed Tradition to the Westminster Assembly*. Grand Rapids, Mich.: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김효남. "언약사상에 나타난 쌍무성: 중세 후기의 언약개념과 종교개혁자들의 언약사상"

비교.” 『역사신학논총』 제39권(2021), 9-50.

이은선. “츠빙글리의 언약사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 1523-1525년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30호(2022), 87-123.

[Abstract]**Unilateral Covenant and Bilateral Covenant: Covenantal Thought of John Calvin**

Jae Ho Lee

(Pyeongchon Saesoon Church, Associate Pastor, Systematic Theology)

One of controversial points with regard to covenantal thoughts in the era of Reformation is the problem of the unilateral covenant and the bilateral covenant. In respect of this issue, one has often contrasted the Geneva reformer John Calvin against the Zurich reformers Huldrych Zwingli and Heinrich Bullinger, and the topic, whether one considers him the same as the covenant theological tradition of Zurich or not, has been intensely discussed. This study points out, that his covenantal thought is not different from the covenant theological tradition of Zurich, and that he presents both of the unilateral covenant and the bilateral covenant. With regard to the bilateral covenant, one has to take heed of an explanation of researchers, that the bilateral covenant is the conditional one. They explain, that for him, the covenant is conditional, when his covenantal thought embraces the bilateral covenant. This study criticizes their main stance, that the bilateral covenant must be conditional. For Calvin, the covenantal relationship is, as for Bullinger, the essence of the covenant, so it is essentially bilateral. However, Calvin does not posit, that one participates on condition in the covenant. One's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covenant does not require an act, which satisfies some conditions. Because God and man love each other in the covenantal relationship, not

conditionally, but mutually, they maintain the fidelity to each other.

Key Words: John Calvin, Huldrych Zwingli, Heinrich Bullinger, unilateral covenant, bilateral covenant, conditional covenant

